

1 7월 해양사고 현황 (2017~2021)



□ 최근 5년간 7월의 해양사고는 평균 257건, 좌초·침수사고가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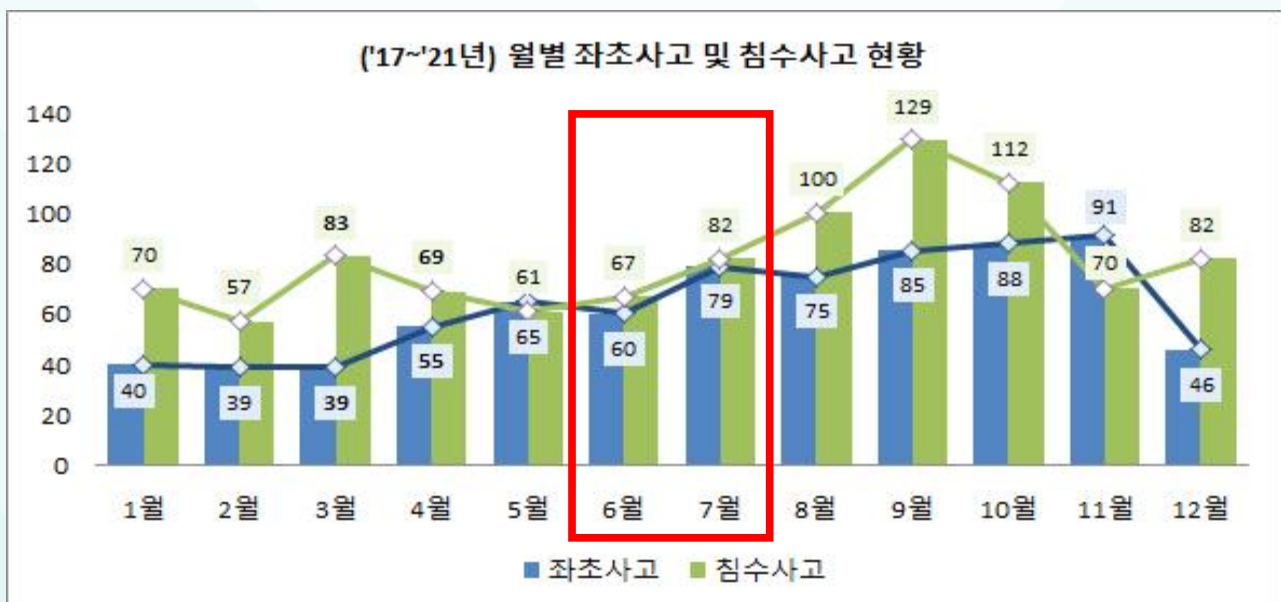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93	146	182	201	230	246	257	264	323	314	250	214

- (사고유형별) 사고 건수는 총 1,287건. 주요사고는 충돌 113건, 안전사고 76건, 화재·폭발 58건, 전복 31건, 침몰 11건 등의 순으로 발생

- (선박종류별) 사고 선박은 총 1,412척. 어선 940척, 수상레저기구 273척, 화물선 46척, 예인선 38척, 유조선 31척, 여객선 16척 등의 순으로 발생

□ 7월은 본격적인 장마철 및 태풍내습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급격한 기상악화 대비 항해안전 유의 및 계류중인 선박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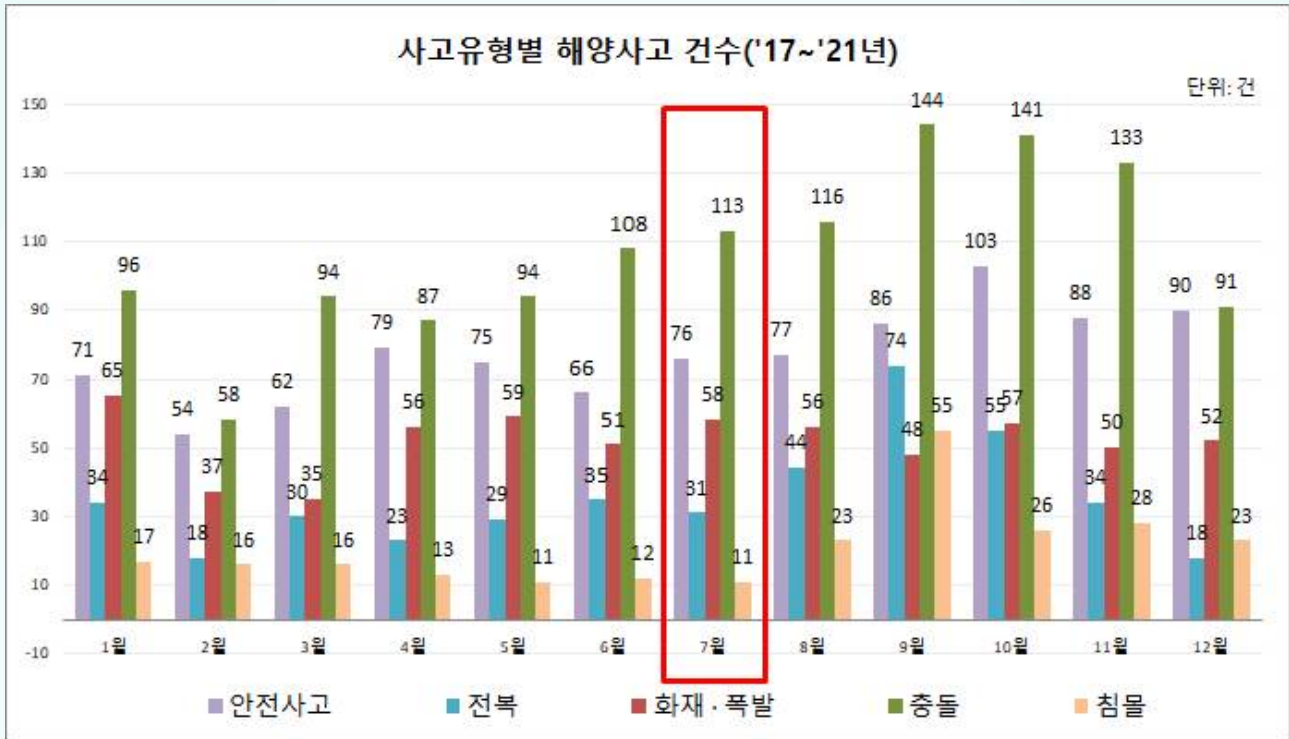
- (사고현황) 전월 대비 좌초사고가 32%(60→79건), 침수사고가 22%(67→82건)로 크게 증가, 장마·태풍 등으로 항해안전 및 계류여건 악화
- (좌초사고) 국지성 호우 등의 급격한 기상변화에 유의하고, 항해 중 선박위치 수시 확인 및 저수심 해역 인근에서는 감속하여 운항
- (침수사고)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되지 않도록 갑판 상 배수상태 확인, 선저 파공부위 점검 등 선박관리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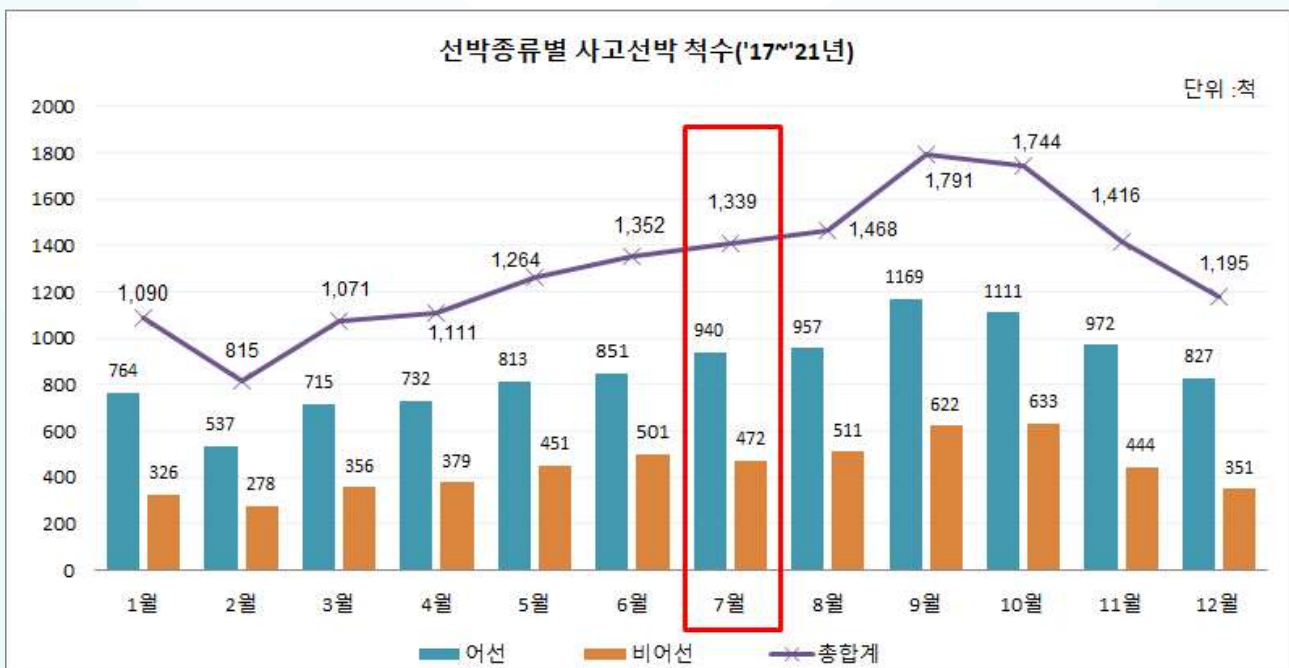
2

최근 5년간 월별 해양사고 현황(2017~2021)

1.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2. 선박종류별 해양사고 현황



1. 2022년 7월 기상정보 (출처 :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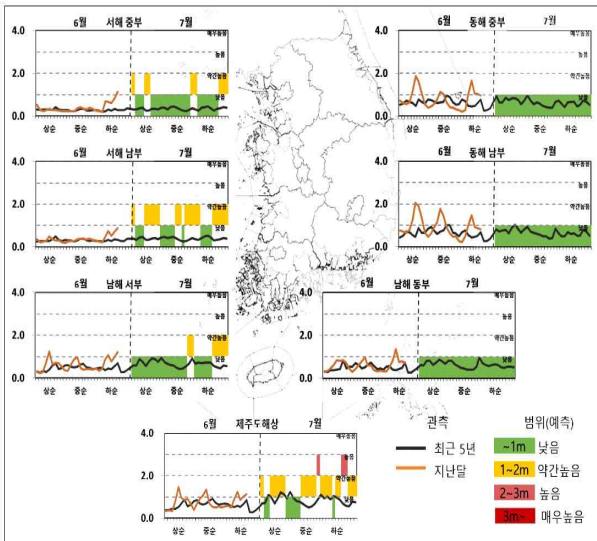
○ 7월 해양 특성(최근 5년('17~'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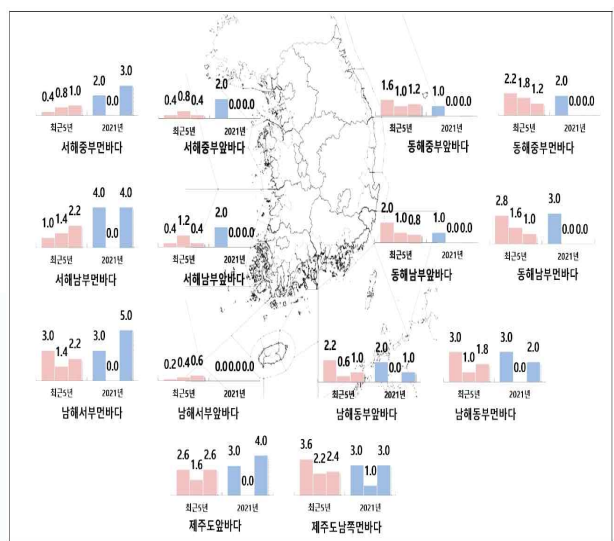
○ '22년 7월 유의파고 및 수온 예측정보

- (유의 파고) 7월 전기간 동해상과 남해동부해상은 파고가 대체로 낮겠고, 서해상과 제주도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은 날이 많겠으며, 특히 제주도해상은 중순과 하순에 파고가 높은 날이 있겠음. 남해서부해상은 상순과 중순에 파고가 대체로 낮겠으나, 하순에 파고가 약간 높은 날이 많겠음.
- (수온) 해역별 수온 분포는 서해 20~29℃, 남해 24~30℃, 동해 22~30℃의 분포를 보이겠음

■ 유의파고 최근 5년('17~'21년), 지난달(6월) 관측 및 7월 예측



■ 최근 5년간('17~'21년) 및 지난해('21년) 7월 풍랑특보 일수



2. 기상청 해양기상정보 전달체계

(음성방송) 선박에 설치된 SSB 송수신기로 주파수 5,787.5KHz를 설정, 24시간 해양기상정보 및 예보를 제공

(문자전송)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문자로 실시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 (marine.kma.go.kr, 가입 및 신청 필요)

(안내전화) 기상청 일기예보 안내전화 131(ARS 및 상담)

1. 낚시어선 A호 좌초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A호 : 낚시어선, 9.77톤, 길이 14.20미터, 디젤기관 735킬로와트 1기
	일시 장소	2021. 7. 11. 13:19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문갑도 남방 약 0.1해리 해상
	피해	낚시승객 11명 부상, 선수 선저부분 파손
	날씨	흐린 날씨, 남서풍 초속 2~4m, 파고 약 0.5m, 시정 약 15미터
원인		<p>국지성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낚시 포인트를 찾으려고 문갑도 주위를 이동 중이던 A호가 간출 해변으로 진입하여 암초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p> <p>A호 선장이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선속을 줄이지 아니한 채 낚시 포인트를 찾느라 어탐기에 집중하며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 원인임</p>
교훈		<p>○ 낚시어선의 선장은 출항 전에 수심, 조위, 조류 등을 미리 파악하여 홀수 대비 충분한 여유 수심이 확보되는 곳만을 낚시장소로 정하여야 하고, 선박이 암초나 간출 해변과 같이 좌초, 접촉 등의 위험이 있는 해역에 접근·진입하지 않도록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야 함</p> <p>○ 국지성 안개 등으로 인해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부득이 섬이나 항포구 등에 접근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고, 시각, 청각, 레이더, 항해용 해도, 최신화된 GPS플로터 등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선위 확인 및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p>

2. 기타선 B호 침몰사건

사 건 개 요	선박	B호 : 기타선, 32.82톤, 길이 18.50미터, 디젤기관 294킬로와트 1기
	일시	2017. 12. 30. 09:47경
	장소	경상남도 사천시 삼천포신항 제2물양장 내 해상
	피해	B호 침몰 및 선내 적재된 경유 약 20리터 해상유출
	날씨	흐린 날씨, 북서풍 초속 4~6m, 파고 약 0.5m
원인		<p>B호가 항내 계류되어 있던 중 침몰함, 이후 이 선박을 인양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에서 선외로 연결된 노후된 배수관에 파공이 발견</p> <p>배수관의 파공부위를 통해 선내에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한 것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원인임</p>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후선은 선체 외판 및 선외 연결 파이프 등에 파공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파이프 등이 격벽에 가깝게 설치된 경우 격벽 쪽으로는 육안으로 그 상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점검 시 거울 반사경 등을 이용하여 점검부위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